

설 따뜻한 온정 나누고 청소년의 바른 성장 돕는 '하나님의 교회'

순천·목포·여수·무안 등 전남 곳곳에서 이불 기증 ... 인성특강도 개최



여수 광림동 주민센터에 이불 20채를 기증한 하나님의교회.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나눔 행보를 펼치는 이들이 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과 감성을 함양하도록 인성교육 특강을 준비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국 약 200개 지역 관공서를 통해 따뜻한 겨울이불 3,750채(1억 5천만 원 상당)를 지원한다. 전남권에서도 13일부터 17일까지 순천 왕조1동·목포 삼향동·여수 광림동 주민센터, 보성군청, 광양 광양읍·무안 무안읍사무소 등을 방문해 관내 이웃들에게 전할라며 이불 120채를 기탁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소중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가족의 마음으로 준비했다"면서 "모두 즐거운 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관공서에서는 지역민들에게 따뜻

한 관심을 보내준 이들을 적극 환영했다. 장순모 순천 왕조1동 주민센터장은 "주민들을 위해 매년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김제중 여수 광림동 주민센터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설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주변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기탁된 물품은 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청소년 가정가정, 조손가정, 장애인가정 등 복지소외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15일에는 목포 하나님의 교회에서 청소년 인성교육 특강이 개최됐다. 목포와 무안, 영광, 나주, 해남, 영암 일대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우승희 전남도 의원이 '청소년들이여,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라'는 주제로 10대 청소년기에 꿈과 목표를 세우고 바른 인성을 함양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자리에 함께한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유

익한 강의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동안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혈, 소외이웃돕기, 재난구호, 농촌일손돕기, 교육지원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봉사를 펼쳐왔다. 앞서 13일에는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강원도 산발 피해 이후 9개월여 동안 고통스런 낱알을 보내는 이재민들을 돕고자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전남지역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이웃들에게 사골곰탕, 전복죽, 육개장, 미역국 등 건강식과 간편식, 명절음식 재료들로 꾸러진 식료품 세트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날씨가 추워지면 연탄과 난방유 등 방한용품도 전달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도 한다.

예기치 못한 재난과 질병, 경제난 등으로 아픔을 겪는 이웃들을 돕고자 헌혈, 이웃돕기, 재난구호, 농촌일손돕기, 교육지원 등에 힘쓴다.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때도 마지막까지 남아 피해 가족을 챙기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다.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신자들이 1·2차에 걸쳐 44일간 제공한 식사량은 1만 5000명분에 달한다.

농번기에는 고추, 감자, 쪽파, 옥수수, 감, 키위 등 농작물을 수확하며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경로당과 요양원 등을 방문해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이·미용 봉사도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선물했다. 환경정화운동을 통해 목포 평화광장, 목포대, 순천 조례호수공원, 순천대, 광양 유당근린공원,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지역 곳곳을 깨끗하게 정화하며 도시 미관 개선에도 힘



순천시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웃을 전달한 하나님의교회.

썼다. 하나님의 교회가 미래세대 지원을 위해 마련한 인성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바른 길잡이가 되고 있다. 대학교수, 학교장, 변호사, 병무청·경찰청·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나눔과 봉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환경보호 같은 다양한 주제로 강연하며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해 30여 지역에서 열렸으며, 인성은 물론 진로에 대한 방안도 모색하는 장이 됐다.

지난 5·6일에는 부산에서 열린 인성교육에 2,5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자 자사 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나눔과 봉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환경보호 같은 다양한 주제로 강연하며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한 자아를 형성할 수

주목받았다. 하나님의 교회는 동·하계 학생캠프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존중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견학과 체험, 자원봉사활동도 진행하며 청소년 및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 175개국 7,500여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한 봉사활동은 1만9천여 건, 참여인원은 132만 명이 넘는다. 이처럼 국가 및 사회 발전과 화합에 앞장서는 공로로 하나님의 교회는 대한민국 3대 정부에서 대통령 단체표창, 정부 표창,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영남권에서도 대구·울산·부산광역시, 경남도지사, 경남도의회, 김해시장 표창장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영국 여왕 자원봉사상,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금상(단체 최고상, 16회), 국제환경상인 그린에플상 등 3,000회기량 상이 담겨있다. 새해에도 77억 인류 모두의 행복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의 발걸음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전효성 기자



광양읍사무소에 이불을 전달한 하나님의교회.

순천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위한 '설명절 종합대책' 마련

귀성객과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위해 노력 ... 8개 분야 26개 세부 실천계획 추진

순천시에서는 몇 일 앞으로 다가온 설명절 연휴기간 동안 귀성객과 시민들의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설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가 마련한 '설명절 종합대책'에는 설명절 연휴가 끝나는 1월 27일까지 종합상황실 운영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 26개 부분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이 담겨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13일 관내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을 방문해 이용자와 시설종사자들에게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김병주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도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을 찾아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살피고 있다.

▲ 시민의 안전과 편의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본격적인 설 연휴기간인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종합상황실이 운영된다. 연휴 4일 동안 종합상황실(749-5631)에서는 부분별 10개반 198명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긴급 상황발생시 대처하게 된다.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는 24일(금)과 27일(월)에 정상 수거하고, 25일(토)과 26일(일)은 기동처리반(749-6403)을 운영해 청결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쓰레기 생활민원에 대응한다.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수도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지난 1월2일 부터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도 시작했으며, 비상급수 상황을 대비한 생수 1천병과 비상급수차도 준비가 됐다.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의 점검도 마쳐



순천시청 전경.

다. 특히 고향의 밤길이 익숙하지 않은 귀성객들을 위해 농촌마을의 보안등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구분해 점검했다. 연휴기간 동안 가로등과 보안등 관련 불편사항은 긴급접미반(749-6666)으로 하면 된다.

▲ 연휴기간 특별 교통대책 마련

연휴기간 동안 시민들의 방문이 늘어나는 전통 재래시장 인근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계도 위주로 유지한다. 다만, 5대 주정차금지구역(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전, 승강장, 인도)은 평소와 같이 단속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설명절 당일 성묘객이 붐비는 시립공원묘지와 추모공원 통행도로에는 경찰서와 협력해 공무원들이 근무에 나선다. 특히 주암담과 상사담지역 고립묘지 성묘객들은 설 당일(25일) 육근1179부대, 한곡수자원공사 주암지사에서 인력과 장

비를 지원해 안전한 성묘를 도울 예정이다. 성묘 희망자는 사전에 상사담(749-8164)과 주암담(749-8029)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의료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순천시에서는 연휴기간 보건·진료대책 상황실(749-6904)을 운영해 시민, 귀성객, 방문객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내 공공보건기관 12개소, 의료기관 110개소, 약국 124개소가 연휴기간 교대로 근무함으로써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외감염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시보건소에서는 입국자 추적조사 관리, 24시간 긴급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구이동이 많은 기간인 만큼 발열(37.5

도),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가족과 함께 즐기는 주요 관광지 프로그램 운영

연휴기간 가족과 함께 순천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운영된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2020 순천만 국가정원 별빛축제'가 1월 27일까지 개최되고 있으며 공룡을 주제로 한 나이트사파리 등 겨울밤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특히 연휴기간 동안에는 한방체험센터 특별이벤트와 습지센터내에서 꽃피약국, 덕담스튜디오, 입춘점스기 등 다양한 가족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또한 낙안읍성에서는 퓨전 국악공연, 전통 음식체험, 전통놀이 등 설명절에 어울리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가족과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추천한다. 이외에도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박물관에서도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연휴 기간 관광지, 숙박, 맛집 등 관광객 안내는 순천관광안내콜센터(1577-2013)로 하면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순천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농수축산물 원산지단속, 여수고용노동지청과 협력해 체불임금해소를 위한 지도활동, 다중이용시설 민관합동점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귀성객과 시민, 관광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종합 대책 추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수현 기자



지난 6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제12대 김병선 지사장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관계자들.

신임 김병선 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취임

"공사 경영수지 개선·자연재해 선제적 대응 힘쓸 것"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는 16(월) 지사 대회의실에서 제12대 김병선 지사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김병선 지사장은 취임사에서 3개 시 신규사업 개척과 사업역량 강화를 통해 공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선 지사장은 전남 여수가 고향으로 1995년 입사하여 분사 인사복지처 이사부장, 전남지역본부 농지은행부장 등을 거쳐 제12대 순천광양여수지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문석 기자

광주은행, 성가롤로병원에 발전기금 후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해 11월경 전남 순천시 성가롤로병원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최금순 성가롤로병원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이한 성가롤로병원에 이날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선도적인 병원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성가롤로병원에 전달한 발전기금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지역밀착경영을 실천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함께 상생·동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수현 기자